지난해 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 경신

냉방기 가동 증가·전기 누진제 완화도 '한몫'

일본·영국·독일 比 많고 미국·캐나다 比 낮아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이 최근 수년간 꾸준히 늘어나면서 일본, 영국, 독일을 넘어섰지만 미국, 캐나다 보다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전력공사가 발간한 '2018년도 한전 편람(KEPCO in Brief)'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전기사용량은 10.2MWh(메가와트시)로 전년(9.9MWh)보다 3.3%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호당 사용량(Per Customer)은 가정용이 5.2MWh로 전년보다 4.8%, 공공서비스 부문은 22.3MWh로 전년 대비 1.4% 각각 증가했다. 산업용 생산부문은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0.6% 하락한 137.2MWh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정용 전기사용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작년 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당시 전기 누진제 완화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한 전기는 총 7만2천895GWh(기가와트시)로 전년보다 6.3% 증가해 1993년 전력통계를 집계한 이래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2000년 5.1MWh에 비해 2배다.

같은 기간 가정용의 호당 전기사용량은 2000년 3.6MWh에서 2018년 5.2MWh로 46.8% 증가했고 공공서비스 분야는 9.9%, 산업용 생산분야는 10.7% 늘어나 가정용 전기사용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1인당 전기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들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주거부문 전력요금의 경우 한국을 지수 100으로 놓고 볼 때 일본 208, 영국 189, 미국 118로 한국이 가장 쌌고 산업부문에서도 일본 153, 영국 128, 미국 70으로 미국을 빼면 한국이 가장 저렴했다.

국내 산업구조가 에너지 효율이 낮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형태인 점도 주된 문제의 하나로 지적된다.

작년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산업용(55.7%)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정용(13.9%)의 4배나 되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의 지속적 증가를 단순히 국민들의 전기 과소비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도 최근 한전의 1분기 사상 최대 적자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박은성 기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수요자들 관심 '집중'

마트 등 생활 인프라 풍부 원스톱 생활 가능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 커뮤니티 시설 '주목'

지난 24일 광주 서구 죽봉대로 일원에 마련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일대에 선보인 고급 주거복합단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교통, 쇼핑, 문화 등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탁월한 입지와 더불어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신뢰도 덕분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견본주택에는 주말 내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광주 서구 죽봉대로 일원에 마련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은 무엇보다 원스톱 입지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실제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 등의 대형유통시설과 대형서점, 영화관, 음식점 등을 갖춘 유스퀘어, 병·의원 120여개가 몰려있는 메디컬스트리트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모두 걸어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인근에 광주지하철 1호선 화정역과 농성역, 그리고 무진대로와 남북을 잇는 죽봉대로 등도 인접해 있다.

교육여건으로는 도보 5분 거리에 광주서초가 있는 것을 비롯해 반경 약 1㎞ 이내에 서석중, 서석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한다. 이와 함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갖춘 광주천과 발산근린공원, 5·18기념공원 등도 인근에 있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단지와 접한 북측에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신흥주거벨트 조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대형건설사 브랜드 프리미엄과 함께 지역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추후 가치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펜트하우스는 복층형 구조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맘앤키즈카페,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시니어라운지 등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광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상층 내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도 적용될 예정에 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6월7일, 2단지 6월11일로 단지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한편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2개 단지 내에 지하 4층-지상 39층(총 8개동) 전용면적 84-218㎡ 아파트 705세대와 전용면적 69-79㎡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이다. /박은성 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캠페인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뽁뽁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노사발전재단 광주센터, 중장년층 제2의 인생설계 '앞장'

전직스쿨·생애설계 프로그램 '호응'…3천600여명 참여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 광주센터(이하 광주센터)가 지역 중장년들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센터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이 시작된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재도약 프로그램에 3천60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퇴직(예정자)들의 연령 업종·퇴직시기를 고려해 마련된 전직스쿨 프로그램에 996명을 비롯해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에는 2천631명이 참여했다.

전직스쿨 프로그램은 총 4-18시간, 커피 바리스타 과정 등 직업체험 위주로 운영되며, 생애설계 프로그램은 총 6-18시간, 자기관리와 경력 유지 개발 방법 강의 등으로 운영된다.

최소 20명 이상 참여를 조건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하루 6시간 이상 교육이 이뤄질 경우 중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중장년층은 2천714명으로 집계됐다.

이명숙 광주센터 소장은 "중소,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도약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직장생활뿐 아니라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노사발전재단은 전국 13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참가신청·문의는 062)531-5701로 가능하다. /박은성 기자

광주은행, 세계수영대회 입장권 저소득층에 전달

광주은행은 27일 오전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656매(1천만원 상당)을 구매해 광주시 동구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지정기탁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 한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동구청장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지역의 저소득층을 비롯한 지역민과 국내외 관람객이 하나 돼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은행은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지난 2월25일 1억원, 4월29일 2천만원 등 총1억3천만원의 입장권을 구매했다. 그리고 광주은행 전 지점 객장에 '수리달이' 인형을 전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수리&달이 인생샷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하며 분위기 붐업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에는 관람객을 위한 외화 환전 부스와 이동점포를 운영해 광주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체육 진흥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역민에게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광주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전남농협, 찾아가는 농업인 행복버스 지원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곡성군 석곡농협 관내 석곡면, 죽곡면, 목사동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복지서비스 '농업인 행복버스'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마을·농가로 찾아가는 행복버스는 농업인 400여명이 찾아와 장수사진, 돋보기안경 등 무료 복지 서비스를 받아갔다.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한 쿤스트는 "최근 이렇게 많은 농업인들이 찾은 적이 없었는데 행복버스 지원사업의 인기가 매년 높아 봉사 하는 입장에선 몸은 힘들지만 기분은 좋다"며 "성실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의 '행복버스'사업은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의료지원, 장수사진, 검안안경, 문화·예술공연, 법률상담 등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농촌지역 농업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석기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농업인 행복버스가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인 농촌지역 농업인에게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 족 회 관
삼계탕 , 소꼬리곰탕
한정식 1인 : 2만 5천원부터 ~ 10만원까지 〈맞춤형 주문가능〉
저녁특선 2만원(3인 이상)
점심특선 한정식(1인 20,000원, 3인 이상 18,000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동명교회 옆)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알파 카피 센터 광주보건대점의
새로운 운영자를 찾습니다!

매각 합니다
보증금 - 3,000 만원
물 품 - 3,000 만원
기 계 - 2,500 만원
권리금 - 2,500 만원
1억 1,000 만원
알파 카피 센터 광주보건대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길 55 보건대 정문
문의 : 010-4821-8929